

■ 연구원 소식

○ 영상택배 시즌 2

옛 사진으로 본 전주한옥마을



새롭게 시작되는 영상택배 시즌2, 그 첫 번째 영상은 전주 어진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 <옛 사진으로 본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3분을 조금 넘는 이 영상은 전주한옥마을의 옛 사진들입니다. 이 옛 사진들에는 경기전을 비롯한 문화유산들의 옛 모습과, 한옥을 짓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전주한옥마을의 역사와 생활상을 만나볼 수 있는 영상택배와 함께 人情을 나누는 시간 지어 가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고연 영상택배 시즌 2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 소식

○ 한승훈 회원 원광대학교 임용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해 9월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종교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승훈 회원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다이멘션연구단에서 연구교수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하게 되어 행복하다는 한승훈 회원에게 축하와 응원을 함께 전합니다.

○ 심경순 회원 전북연구원 임용

지난 8월 전주대학교에서 백제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리 연구원 심경순 회원이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에 위촉연구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길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한명수 회원 신간 출판 안내

연구원 문화강좌에도 함께 하셨던 역사학자 주철희 선생께서 지은 <탄압이면 항쟁이다>가 한명수 회원이 운영하는 흐름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 항쟁을 위해 꺾기하며 인민유격대가 내걸었던 구호 '탄압이면 항쟁이다'를 제목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간 주로 역사서를 집필하셨던 주철희 선생의 이번 책은 제주 4.3항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소설의 형식을 빌렸다고 합니다. 책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1948년 제주를 '제주4.3항쟁'으로 기록하면서,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과 나누고픈 소식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구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마음 편히 나누는 연구원 식구들이 되길 빌어봅니다.

■ 역사 속의 오늘

밀알이 된 농민(2016.09.25)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요한복음 12장 24절 -

신약성서에 나오는 '밀알' 이야기다. '밀알' 이야기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쉽사리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다. 하나의 씨앗이 수없이 많은 열매를 잉태하게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농민들은 특히 그러하다. 오늘 이야기는 70년의 삶을 밀알처럼 살다 간 한 농민에 대한 기억이다.

그는 1947년 10월 전남 보성 웅치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찰이었다. 1968년 중앙대학교 법대에 입학하는데 50여 가구가 살았던 마을에서 유일한 대학 신입생이었다. 법대생이었던 공부를 잘해 서울로 유학갔지만 그는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다니던 대학에서 세 번이나 제적당했다.

첫 번째는 1971년 10월 위수령을 발동한 박정희 정권에 맞서 교련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였고 복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973년 교내에서 유신철폐투쟁 시위를 주도하다 두 번째로 제적되었다. 그 후 갈멜 수도원 수도사로 생활하며 수배생활을 견디어 나가던 중 10.26이 일어났고 다시 복교를 준비했다.

1980년 3월 학교로 돌아온 그는 34세이었다. 바야흐로 '서울의 봄'이었다. 복학하자 후배들이 총학생회 부회장직을 억지로 떠안겼다.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다. 그해 5월15일 전두환·최규하·신현확 등의 상여를 만들어 중앙대 교내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유신 잔당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역까지 행진하는 거리시위 준비의 대부분도 그가 했다. 상여를 만들려고 목공소를 찾아다니고, 학생들이 먹을 빵을 마련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그를 대학 친구들은 기억한다.

짧았던 '서울의 봄'을 뒤로하고 5월17일 계엄이 선포됐다. 학교 안으로 계엄군이 밀려들어 왔다. 당시 기숙사에 있던 그는 도망가지 않았고 붙잡혀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1981년 3월 가석방된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9월 아내와 맞선을 보고 그해 11월 혼인한 후 더욱 열심히 땅과 부대끼기 시작했다. 축산업도 시작해 소도 몇 마리 샀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용자를 해주며 소 사육을 권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 농산물의 수입 장벽을 허물자 1985년 쌀·밀·콩은 물론 곰탕용 소뼈까지 300가지가 넘는 농·축산물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1983년 한 두당 100만~150만원 하던 소값이 2년 만에 30만~50만원으로 떨어졌다. 많은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농가 빚더미 위에 앉게 됐다.

1985년 카톨릭 농민회에 가입한 그는 1987년 보성·고흥지역 협의회장을 맡았고 1989년 광주·전남지역회장을 맡아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다. 마을 민주화 운동도 했다. 면사무소에서 지정하는 '관선 이장'이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투표제도를 만들었다. 마을 주민이 직접 뽑은 '민선 1호 이장'이 됐다.

그가 활동했던 카톨릭 농민회는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출범하자 1990년대 들어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 땅을 되살리는 '되살이 운동' 등 대안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전남본부 회장을 맡고 있던 그는 우리밀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실험하듯 우리밀 재배를 시작해 우리밀 재배 면적을 4년 만에 300만 평까지 늘렸다. 1984년 전두환 정권이 밀 수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밀 씨가 말라버린' 현실을 바꾼 셈이다.

전남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먹거리'를 꾸러미 형태로 배달하는 생협운동도 했다. 일일이 전화로 '달걀, 고구마, 쌀, 배추' 등 상품을 주문받아서 그걸 생산자들에게 받아와 소비자에게 배달했다.

일체의 직함을 모두 내려놓은 2000년부터는 "이제 지역에서 농민으로 살아가겠다"며 '칩거하다시피' 했다. 후배들이 "도지사에 나가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사하며 늘 "농사일을 지으며 우리 먹거리를 바르게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갑을 넘어서며 손주까지 얻은 진짜 할아버지가 된 뒤에도 그는 농민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후배들과 함께 했다. '밀밭밟기 행사' 때마다 징이나 팽과리는 백남기의 몫이었다. '농민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매년 농민대회 때마다 서울로 향했다. 둘째아들이 이제 그만 갈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농가 부채 탕감하러 가야지"라고 말했던 그였다.

그러던 그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쌀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 촉구 “민중대회”에 참석했다. 그날 오후 18시 56분 그는 종로구청 앞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고 그후도로 20초동안 직사 물대포가 그의 얼굴에 이어졌다. 코와 입에서 출혈이 이어진 그는 그날 밤 11시에 수술에 들어갔지만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016년 9월 25일 숨을 놓았다.

서울대병원 측은 그의 사인을 병사로 발표했고 국가기관의 폭력에 분노했던 많은 민인들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명백한 외인사라고 주장했다. 한달여간 정부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2016년 11월 1일 부검없이 장례가 시작되었고 11월 5일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에 안장되었다.

졸업장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의 모교는 그가 숨을 놓은 이듬해 입학 50년만에 명예졸업장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법대생에서 수도사로 그리고 고향의 농민으로 사회적 이름을 부여받았던 그는 자신의 삶을 던져 국가폭력의 부당함을 밝혀내 많은 이들이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지키는데 기여했고 우리 현대사에 변곡점을 찍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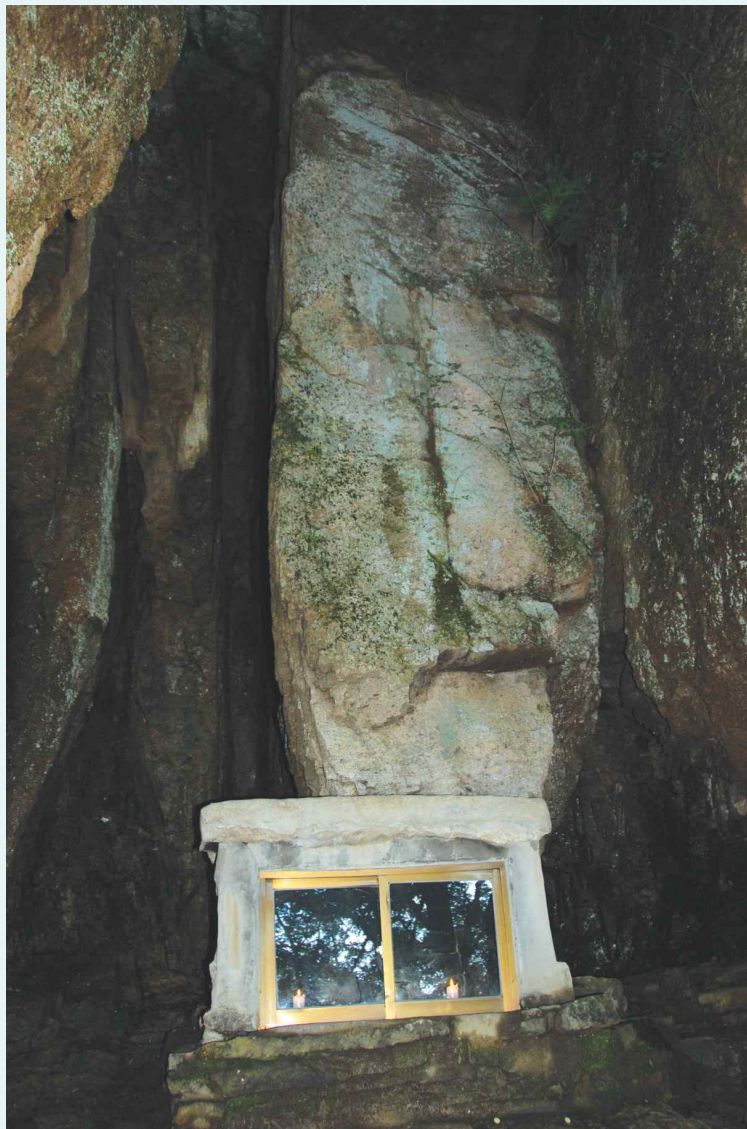
1947년 전라도 보성에서 태어나 밀알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농민 백남기가 2016년 9월 25일 하늘의 별이 되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금오산 약사암> 여섯 번째 이야기 “용돌이바위와 마애보살입상 ”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용돌이바위 | 바위틈의 거대한 용틀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저 바위는 언젠가 허물을 벗고 한 마리 용으로 승천할 것이다.

약사암을 뒤로하고 마애보살입상을 향해 20분가량을 걸으면, 좌측으로 '용돌이바위'가 기이한 자태를 드러낸다. 한자로는 '용회암龍回巖'으로 불리는데, 용이 승천하면서 흔적을 남겼다는 바위다. 입구에 돌탑이 섰다.

용돌이바위는 크기도 대단하지만, 자태가 아주 의젓하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여다보면, 마치 용트림을 하다 굽힌 듯한 빗살 문양이 걸면에 드러난다. 아니, 용무늬가 일렁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아주 오래전부터 무속인들은 이곳에다 끊임없이 촛불을 밝혔다.

용돌이바위 좌우에는 두 개의 작은 굴이 뚫렸다. 왼쪽은 좁고 막혔지만 오른쪽은 제법 넓고 깊다. 오른쪽 굴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늘 그득하게 고였는데, '용궁정'이란 이름 역시 무속인들이 남긴 작품이다. 그러나 물맛 역시 아주 좋아서 등산객들은 '용샘'이라고 부르며 애용한다. 한여름에 서늘하게 풍겨 나오는 냉기 또한 등산객들의 더운 땀을 식혀 주기에 충분하다.

용돌이바위에서 푸르른 오솔길을 따라 내쳐 걸으면 잠시 후에 마애석불이 나타난다. 산자락을 굽어 돌아 갑자기 나타나는 석불이다. 예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며 석불은 사람들에게 쉬어 갈 만한 공간을 열어 준다.

금오산의 마애불은 보물 제490호로 지정되었다. 한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판이 눈에 띈다.

이 불상은 금오산 정상 북편 아래 자연 암벽에 조각된 5.5m의 석불 입상이다. 특이하게 자연 암벽의 돌출 부분을 이용하여 좌우를 나누어 입체적으로 조각하였다. 얼굴은 비교적 풍만하면서도 부피감이 있으며, 가는 눈 작은 입등에서 신라보살상보다는 다소 발전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일반 성인의 세 배가 넘는 키의 석불로 '거인산'에서 보는 가장 큰 입상이다. 예의 붉은 돌 위에 투박하게 새겨졌는데, 다소 무표정한 인상이다. 두 손은 그냥 편안하게 내려뜨렸다.

석불 앞쪽으로 여러 가지 꽃들이 제각각 고운 단장을 하고, 하늘에는 산새들이 날아간다. 사람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돌탑 하나가 한쪽에 비껴섰다. 전방으로는 비탈을 따라 잡목들이 우거졌다. 석불은 지금도 말 없는 말로 설법 아닌 설법을 고요히 베푸는 중이다. 바위 위의 다람쥐 한 마리가 귀를 모은다.



금오산 마애불 | 보물 제490호. 바위 거죽을 뚫고 모서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부처님이다. 어서 오라며 두 손을 편안하게 늘어뜨렸다.

한바탕의 꿈이 무르녹는 금오산이다. 설법이 언제 끝나려나? 기다리다 지친 돌이끼가 석불 위에 살그머니 뿌리를 내린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한 줄기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붉은 석양이 푸른 하늘을 장엄하게 물들인다. 금빛 까마귀 한 마리가 때맞추어 허공을 가로지른다.

다음 주는 <팔공산 중암암> 첫 번째 이야기 “갓바위 모신 팔공산”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